



명사의 리치하우스

# 윤홍근 회장 '요새'같은 초호화 대저택

(제너시스BBQ)

글로벌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업계 매출 순위 빅3 자리를 매년 지켜오고 있다. 최근 그룹의 경영권 지분은 아들인 윤해웅 씨와 딸 윤경원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외형상2세 경영체제를 갖춰 가고 있으나 명목상일 뿐 실질적인 경영은 여전히 막후에서 윤홍근 회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기 성남의 공인중개사들 전언에 따르면 윤 회장의 초호화 대저택은 보전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 치킨 장사로 슈퍼리치 반열에 오른 제너시스BBQ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거주하는 저택도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곳에 마련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 등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회장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전시장 등으로 이뤄진 A·B·C·D동 중 A동을 소유하고 있다.

2007년 5월 A동을 7억92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연면적 992.31㎡(약 300.17평) 규모다. 아들 윤해웅 씨는 D동을 소유하고 있는데 2021년 5월 이전 소유자인 아버지 윤 회장에서부터 22억8500만 원에 매입했다. D동은 연면적 391.21㎡(약 118.34평)이다.

## 보전녹지지역 내 초호화 저택 거주... 주변 개발은 글썽

고급 빌라아파트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서울하우스'의 이관규 대표는 "A동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며 B동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 시설, C동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 D동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D동의 경우 2011년 동생 윤인상 씨가 윤 회장에 3.3㎡(1평)당 740만 원(총 19억7000만 원), 2021년 윤 회장이 다시 아들 윤해웅 씨에게 3.3㎡당 16% 상승한 금액인 858만 원에 매각한 바 있다"며 "지난해 6월 주변에서 3.3㎡당 1186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A·B·C·D동 전체의 가치는 약 6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윤 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보전녹지지역에 해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요소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일가가 성남 시흥동 대저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남중수기자

## 성남 보전녹지에 4개동 '가족타운'... 한개 동은 아들에게 매각 글로벌 외식기업으로 승승장구...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자녀에게 지분 넘기고 전문경영인 영입했지만 막후 '쥐락펴락'

도 없고 땅값도 주거지역과는 달리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바로 뒤로 고속도로가 지나고 인근 서울공항 때문에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앞으로도 이 인근이 개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만약 보전녹지지역 내에 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없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한다.

윤 회장은 A·B·C·D동이 있는 토지 중 일부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은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윤 회장은 보전녹지지역을 염두에 두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너시스BBQ 글로벌 기업 이끈 윤홍근... 치킨 대학·치킨연금 만들기도  
윤홍근 회장은 1955년 순천에서 태어

나 순천고와 조선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에 입사해 1990년 이천사료공장 총무과장, 1994년 미원이 인수한 닭고기를 유통하는 마니커의 영업부장을 맡았다.

199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를 설립했다. BBQ는 '최고의 믿을 만한 품질(Best Believable Quality)'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95년11월 1호점을 연 지 6개월 만에 100호점을 열었고 1999년 11월 4년 만에 1000호점을 돌파했다.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닥치자 전전공금하던 가맹점주들에게 위기 돌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본사와 가맹주의 신뢰 관계를 앞세워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한식 외식사업과 우동·돈가스 전문점 등 사업의 다각화를 꾀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대학을 벤치마킹해 2003년 치킨 대학을 설립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치킨

대학은 예비 가맹점주들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조리 방법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에 필요한 회계·마케팅 등을 배운다. 기초 교육과정과 이론·실습을 마친 뒤 수료증을 받아야 BBQ 매장을 운영할 권한을 준다.

국내 상승세에 힘입어 2003년 중국 상하이에 직영매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후 2004년 스페인·2006년 미국과 일본 등에 진출했고 현재 58개국에서 7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을 대표하는 외식 전문지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외식 브랜드'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너시스BBQ는 지난해 매출액이 4188억 원으로 전년(3624억 원) 대비 15.5% 증가해 치킨업계 매출액 3위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641억 원으로 전년(608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윤 회장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을 맡았다. 그는 쇼트트랙 편

과 판정으로 의기소침한 선수들에게 '치킨 연금'을 수여했다. 루지와 컬링 선수 일부도 이 연금의 수혜를 받았다.

## 검찰, 윤 회장 배임 혐의 기소... BHC와 악연 골머리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에게 자신의 개인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게 했다. 그러나 원금이 회수되지 못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엔에스하이넷은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매각됐다.

치킨업계 경쟁사 BHC그룹이 2021년 4월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 원을 대여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윤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를 수사한 끝에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BHC가 한달 뒤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후 배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려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7월2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 반박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를 밝혀질 것"이라는 것이 BBQ의 입장이다.

정도현 기자 djhung@skyedaily.com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치킨대학'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 목리 일대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총 17필지·18만5217㎡(약 5만6000평) 규모다. 윤홍근 회장의 장남 윤해웅 씨 역시 이곳에 총 4필지·1만2729㎡(약 385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치킨 대학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